Meritz Financial Daily

| 2025. 11. 25 (Tue)

meritz 메리츠증권

금융 Analyst 조아해
02. 6454-4870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02. 6454-4905
kunhee.kong@meritz.co.kr

News

강달러·부실채권·생산적 금융… 은행 건전성'삼중 압박'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xDxRnF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하고, 무수익여신(NPL)이 증가됨에 따라 연말 은행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부상

내년부터 생산적 금융이 본격 확대되면 은행 건전성에는 부담이 가중… 생산적 금융의 대상은 대부분 중소 · 벤처기업 등 위험군

"담합도 부당이익도 없었다" … 행정소송 검토나선 은행들
매일경제 https://zrr.kr/8phBUS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에 '정보 교환 부당 공동행위' 혐의를 적용해 수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나선 가운데 은행들은 담합을 부인하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

은행의 핵심 업무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타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참고했을 뿐 이를 통한 대출 한도 조정은 없었다는 것

올리브영, 신한은행이 잡았다…임베디드 파킹통장 처음 출시키로
머니투데이 https://zrr.kr/Ypnhvr

신한은행이 유통가 대어 CJ올리브영과 파킹통장(고금리 입출금통장)을 출시… 올리브영이 은행과 임베디드 금융 상품을 내놓는 건 처음

아직 구체적인 상품 구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올리브영 앱에 신한은행 파킹통장을 연결해 결제하면 높은 적립률과 이자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설계될 것으로 예상

2금융권 신용평가 대수술…중저신용자, 더 낮은 대출 금리 받는다
이데일리 https://zrr.kr/mpca4m

금융위원회는 '1→2금융권 금리단층' 현상의 실태 · 원인을 파악하고 씬파일러 등 중저신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금리 산정방안을 살펴보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자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이른바 '금리 계급제' 타파를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로 언급한 후 금리단층 해결방안을 찾는 것

'좀비기업' 퇴출 강화 효과 본격화…"내년부터가 진짜"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cWY7wz

정부와 한국거래소 등이 요건에 맞지 않는 기업들을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면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기업도 늘고 있어

올해 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한데 이어 내년부터 시가총액 등 형식적 요건도 강화되는 만큼 향후 상장폐지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사업추진부' 신설…인가 채비 마무리
이투데이 https://zrr.kr/haFDAY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발행어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인 '발행어음사업추진부'를 신설

인가 심사 막바지를 앞두고 조직을 상설 전담 부서 체제로 재편해 당국 심사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가 이후 사업 운용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

"해약환급금 부담 줄여달라"…당국 '신중모드'에 연내 개선 안갯속
이데일리 https://zrr.kr/Rnj2c1

올 상반기 기준 보험업계 해약환급금준비금은 44조 1000억원으로 집계.. 지난해 말보다 5조 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말엔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금융위원회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최근 제도 개선 검토를 시사했으나, 이미 올해도 한 차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기준을 완화한 적이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어

車 보험 10월 손해율 87.6%…"보험료 인상 불가피"
뉴스1 https://zrr.kr/EaGOkN

주요 손해보험사의 10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7.6%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2%p 상승

누적 손해율도 85.5%를 넘어 각 손보사들은 올해 자동차보험에서 50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 이에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금융위·한은 스테이블코인 힘겨루기 계속…"공동검사 요구 과도"
서울경제 https://zrr.kr/krKdhP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공동 검사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혀

스테이블코인이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자본 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은행 중심의 제한적 허용과 중앙은행의 감독권을 주장하는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의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

STO제도화 속도…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이데일리 https://zrr.kr/CtLmo8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과

토큰증권 입법이 이번 회기를 계기로 본회의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